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

(허 홍 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95호
----------	------

발의연월일: 2019. 3. 25.

발 의 자: 허홍석 의원 외 11명

1. 주 문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려 역사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가.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20만 명의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아직도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역사왜곡과 독도 망언 등으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
- 나. 2011년 12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을 시작으로 평화비 건립운동에 국내외 시민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영등포시민들은 올해 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를 결의한다.

3. 결의안: 붙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20만 명의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 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정부는 아직도 전쟁범죄에 대해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역사왜곡, 독도망언, 군국주의 부활로 우리를 분토케 하고 있다.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천 번째를 맞이했던 2011년 12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을 시작으로, 현 세대와 미래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려 역사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평화비 건립 운동에 국내외 시민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서울 25곳 자치구 중 이미 16곳의 자치구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완료되었고 5곳의 자치구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진행 중이다.

영등포시민들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지지하며 지자체의 건립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교훈을 되새기며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을 역사교육 현장으로 만들고 가꾸어 갈 것이다.

201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